



2021 ISSUE PAPER 3

임진의병 사례를 통해 본  
**나눔의 이해와 응용**

---

신성규 | 아름다운재단 간사

2021.10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 일러두기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주장이며 아름다운재단 및 기부문화연구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 이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self@beautifulfund.org](mailto:self@beautifulfund.org)로 연락 바랍니다.



## 들어가며

페이튼과 무디는 『필란트로피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필란트로피(이 보고서에서는 '나눔'이라고 합니다)를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voluntary action for the public good)'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페이튼과 무디가 이렇게 정의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나눔 행동들의 공통분모, 즉 보편성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대와 사회를 막론하고 인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이 보편적으로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어떤 나눔의 전통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과거에 어떤 나눔 행동이 있었는지 살펴볼 때, 저는 페이튼과 무디의 이 보편적인 정의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과거 혹은 다른 사회를 살펴볼 때 현재 혹은 우리 사회의 통념에 구애받지 않으려면 이러한 보편적인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선조들의 나눔을 살피고자 질문을 구성할 때, 이런 보편적인 관점에 의하지 않으면 반드시 오늘날의 나눔 행동과 닮은 모습들을 과거 속에서 확인하려고 하게 됩니다<sup>1)</sup>. 예를 들어 “우리 선조들의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었죠?”라고 묻는 대신 “우리 선조들 중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 자기 재산을 기꺼이 내어놓은 사람이 누구였나요?”라거나, “우리 선조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라고 묻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찾은 나눔 행동은 물론 훌륭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날의 나눔 행동과 형태가 유사한 행동만으로 한정하여 찾게 됩니다. 둘째, 형태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찾은 나눔 행동들이 오늘날의 나눔 행동으로 연결되는지, 즉 그 행동이 나눔의 전통인지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날의 나눔 행동과 유사한 선조들의 행동을 찾는 대신 선조들의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찾은 우리 선조들의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 중 하나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 활동(임진의병)입니다. 임진의병과 같은 무장 항쟁은 오늘날 나눔 행동의 범주 안에 포함하기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공익 비전, 자발성,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과 같은 보다 보편적인 요소를 충족하는 한 나눔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소의 충족 여부를 살피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입니다.

1) 마사 누스바움은 『인간성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관점을 ‘서사적 쇼비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 필란트로피=나눔?

이 보고서에서는 ‘필란트로피(philanthropy)’를 ‘나눔’으로 쓰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한국에서 아직 공인된 규칙이 아니라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려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필란트로피’는 우리 한국인에게 낯설고 어색하다.
- 비영리, 시민사회, 자선, 제3섹터 등 다양한 이름에 내재된 다양한 의미들을 아울러 일컬을 하나의 단어가 절실히 필요하다.
- 이렇게 아울러 일컬을 만한 단어로서 가장 자주 쓰이는 말이 바로 ‘나눔’이다.

이러한 입장은 잠정적이며, 용어에 관한 사람들의 선호나 사회적 합의의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목 차

들어가며 .....	1
필란트로피=나눔? .....	2
<b>1. 나눔의 요소</b> .....	4
공익 비전 .....	4
자발성 .....	6
나눔 행동 .....	6
<b>2. 임진의병 사례</b> .....	8
임진의병의 의미 .....	8
재지사족의 주도적 역할 .....	9
임진의병의 공익 비전 .....	9
임진의병의 자발성 .....	10
임진의병의 자발적 행동 .....	13
보완 및 후속연구 제안 .....	14
참고문헌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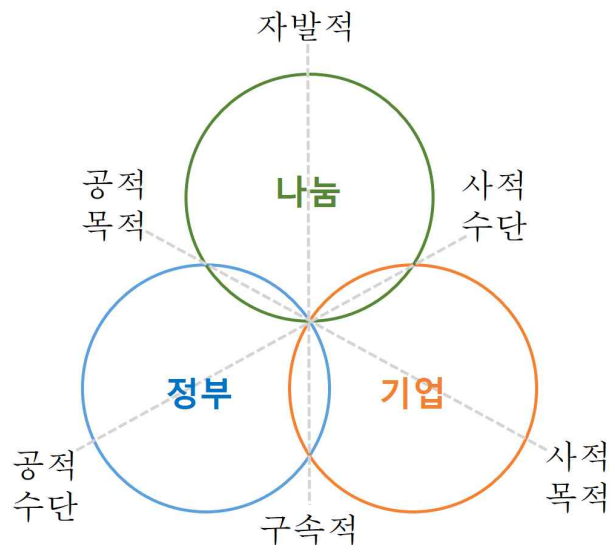
# 1. 나눔의 요소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을 구성하는 공익 비전, 자발성, 그리고 자발적 행동을 ‘나눔의 요소’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나눔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필란트로피란 무엇인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공익 비전

나눔의 공익 비전, 공익 지향성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하여 정부, 기업, 나눔 이렇게 ‘세 부문으로 구성된 사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부문으로 구성된 사회란 현실을 단순화한 ‘모형’인데, 모형은 어떤 사실을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 역할을 합니다. 이 모형을 통해 나눔 부문과 다른 부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 나눔이 갖는 공익 지향성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림 1〉 세 부문 모형<sup>2)</sup>



세 부문으로 구성된 사회를 도식화한 것이 〈그림 1〉인데요, 우선 〈그림 1〉은 각 부문의 구성 원리를 나타냅니다. 나눔 부문의 구성 원리는 공적 목적(public ends)-사적 수단(private means)-자발성(voluntary)이고, 정부 부문의 구성 원리는 공적 목적-공적 수단(public means)-구속성(coerced)이며, 기업 부문의 구성 원리는 사적 목적(private ends)-사적 수단-구속성입니다.

또한 〈그림 1〉은 각 부문 간 관계를 나타냅니다. ‘세 부문 모형’이므로 사회의 공식적 활동은 세 부문 중 어느 하나에는 반드시 속해야 하며, 세 부문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식적 활동(이른바 제4 부문)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각 부문 간 경계에 걸친 활동 영역 - 경계가 뚜렷한 교집합이라

2) Sulek, Marty. 「On the Meaning of Philanthropy」.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March 2019 : 202쪽. 원문에서는 각 부문이 자원을 조달하는 주된 방식으로서 Philanthropy, Taxation, Exchange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부문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각각 나눔, 정부, 기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기보다 ‘회색지대’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의 존재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sup>3)</sup> 그러나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세 부문 모두에 속하는 활동(즉 이 모형이 변별하지 못하는 활동)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부문 모형을 통하여 다른 부문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나눔 부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적 목적을 지향한다는 점은 정부 부문과 같습니다. 둘째, 목적 달성을 위해 공적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기업 부문과 같습니다. 셋째, 어떤 행위가 공적 구속력(법령 등)나 사적 구속력(계약 등)이 아닌 자발성에 의존한다는 점은 다른 두 부문과 다른 나눔 부문의 고유한 원리입니다.

정리하자면, 나눔 부문은 정부 부문과 마찬가지로 공익을 지향하지만, 정부부문(그리고 기업부문)과 달리 구속적 수단을 행사할 수 없고,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인 참여 요청이란 어떤 문제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또는 외면하지 않을 의무와 같은 도덕적 의제를 제시함으로써 호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페이튼과 무디는 나눔의 본질을 ‘도덕성’의 지향으로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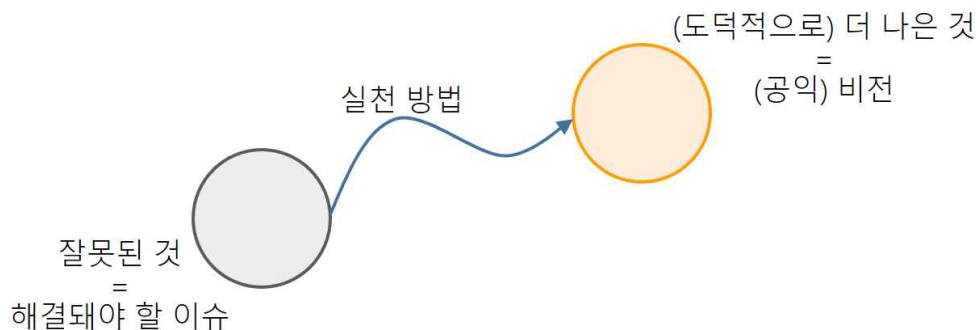
<표 1> 부문 간 차이점

부문	수단	목적	정의된 견해
정부	공적 행위자	공익	권력
기업	사적 행위자	사익	부
나눔	사적 행위자	공익	도덕성

출처 : 『필란트로피란 무엇인가』 86쪽.

잠재적 참여자들에게 호소하는 도덕적 의제를 공익 비전이라고 합니다. 페이튼과 무디는 공익 비전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잘못된 것을 정의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이슈를 제시하기. 둘째, 무엇이 도덕적으로 더 나은 것인지에 관한 비전을 제시하기. 그리고 셋째,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 방법을 제시하기. 이 구조는 뒤에서 임진외병의 공익 비전을 살펴보는 틀로써 사용하겠습니다.

<그림 2> 공익 비전(도덕적 의제)의 구조



3) 이 사실은 정부의 지원이나 영리행위 등을 일부 포함하는 행위라도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면 나눔 영역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자발성

앞서 자발성은 나눔 부문의 고유한 원리로서 도덕성과 연결된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나눔의 행동은 그 행위가 옳다는 행위자 스스로의 판단 외에 그 어떠한 것에도 구속받지 않은 실천 행동이라는 점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 혹은 자발성과 도덕성은 이처럼 맥이 통합니다.

자발성은 공적 구속력이나 사적 구속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공적 구속력으로부터의 자유(이하 ‘비강제성’이라 합니다)는 나눔 행동이 권력이나 법령 혹은 관습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된 행동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사적 구속력으로부터의 자유(이하 ‘비자발성’이라 합니다)는 나눔 행동이 계약, 즉 그 행동의 대가를 약속받거나 대가를 기대하는 것, 혹은 이미 받은 어떠한 대가로부터 자유롭게 선택된 행동이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이 나눔 행동으로서 비강제성이나 비보상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는 논쟁 가능성에 열려 있으며, 어떤 시대에 혹은 어떤 사회에서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임진의병의 자발성을 살펴볼 때에는 비강제성과 비보상성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나눔 행동

나눔 행동이 무엇인지는 흔히 구체적인 행동 또는 행동 주체를 나열하는 방식(열거 방식)으로 정의되거나, 정부나 기업 부문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제외하는 방식(잔여 방식)으로 정의됩니다. 열거 방식으로 나눔 행동을 정의하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반면, 특정 행동 혹은 특정 주체의 행동을 임의로 추가 혹은 배제하거나 공익 비전이나 자발성에 관한 인식의 시대의 변화나 사회적·문화적 차이를 적절히 고려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잔여 방식으로 나눔 행동을 정의하면 정부나 기업 부문과 다른 나눔 부문의 독자성을 강조할 수 있는 반면, 나눔 부문의 독자적 가치나 원리를 담지 못하고 다른 부문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에 영향을 받거나 순환 논리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표 2〉 나눔 행동을 정의하는 방식

열거 방식		잔여 방식
특정 행동을 열거	특정 주체의 행동을 열거	
개발, 구호, 기부, 동정, 모금, 봉사 학습, 선행, 애드보커시(advocacy), 의연, 자선, 자원봉사, 장학금, 재능 기부, 출연, ...	기업사회공헌(CSR), 배분, 보시, 부조,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시민사회 활동, 적선, 채리티, 프로보노, 헌금, ...	독립부문(independent sector) 활동, 비영리활동, 비정부활동, 제3부문(the third sector) 활동, ...

페이튼과 무디의 정의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은 나눔 부문을 타 부문과 구별하는 기준 원리, 즉 ‘공익지향성+자발성’을 갖는 행동을 나눔 행동으로 정의하는 방식으로서, 열거 방식보다 보편적이며 잔여 방식보다 명료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튼과 무디는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에 자발적 기부와 자발적 봉사활동, 그리고 자발적 결사(voluntary association)<sup>4)</sup>가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나눔 행동을 분류한 것이 아님에 주의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자발적 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발적 결사가 왜 중요할까요?

자발적 결사가 없으면 기부와 봉사활동 같은 개별적이고 비공식적이며 때로는 우발적인 나눔 행동을 집단적이고 공식적이며 체계적인 행동으로 전환하여 보다 크고 어려운 공익 목적에 연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발적 결사를 통해 조직화된 나눔 행동이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되면 나눔의 각 분야, 특히 모금에 있어서 전문성이 강화되므로 공익 목적 달성 능력이 향상됩니다. 대부분의 나눔 활동이 조직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서 임진외병의 실천적 행동을 살펴볼 때에는 결사체로서의 의병 집단의 특성과 행동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

4) 자발적 결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동의 목표가 존재한다. ②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③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구성원의 개별성이 보장된다.

## 2. 임진의병 사례

임진의병은 임진왜란 때 침략을 받은 조선에서 퇴직관료 및 유생 등 재지사족(在地士族)과 기층민이 자발적으로 봉기하여 침략자인 일본군에 대항한 민간인 부대를 말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공익 비전, 자발성, 그리고 자발적 행동 등 나눔의 요소들을 살펴볼 사례로서 임진의병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진의병의 봉기는 비서구/비동시대 사건이면서, 나눔의 요소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병은 현대 한국인에게 '나라가 위급할 때 민족과 국가 수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군대를 조직해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sup>5)</sup> 것으로 인식되는데요. 여기에는 ① 공익 비전, 즉 나라가 위급할 때 민족과 국가 수호를 위하는 것, ② 자발성, 그리고 ③ 실천 행동, 즉 군대를 조직해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는 것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둘째, 임진의병의 실천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에 대응하는 행동 방식과 유사해 보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임진의병이 오늘날 한국의 나눔 전통의 근원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이 보고서에서 직접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향후에 다른 연구나 검토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임진의병의 의의

임진의병은 임진전쟁 발발 직후 전국에서 신속하게 일어났으며, 크고 작은 승리를 거뒀고, 설령 지더라도 쉽게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의병이 전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의병에 대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평가는 긍정(군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여)과 부정(명의 원군과 이순신의 수군이 크게 기여)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투 능력과 조직력이 측면에서 아마추어 부대가 일본의 잘 훈련된 정규군에 비해 열세에 있는 민간인들이 정규군을 상대로 승리했는가를 가지고 의병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임진의병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전 국민을 단결시켜 일본군에 대한 항전 태세를 만들어낸 데 있습니다.<sup>6)</sup> 조정은 일본군의 파죽지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밀리기만 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고, 지방관들은 전란 이전부터 백성들로부터 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조정은 백성들에 대한 통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병력과 군량을 징발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의 명망 있는 사람들이 향토 수호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외치며 봉기하였으므로, 비로소 백성들이 이에 조용하여 모여 들었다고 합니다. 조정이 잃어버린 리더십을 이들이 대신 제공한 셈입니다.

또한 임진의병은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5) 「63. 호국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 <제 28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2010.2.26.) 회의록>. 국회사무처(2010).  
6) 당시 조정은 의병에 대해 '(군사적으로) 크게 성취하지는 못했으나 인심을 얻었으므로 의병 덕분에 국가의 명맥이 유지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선조수정실록』 권 26, 선조 25년 임진년(1592) 6월 기사)

에 관한 후대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약 30년 뒤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을 때, 그리고 구한말 일제가 조선을 침탈하는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의병의 이름으로 유사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인 역시 과거에 겪었던 국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면서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 재지사족의 주도적 역할

앞서 말했듯 임진의병은 재지사족이 주도하고<sup>7)</sup> 이에 기층민이 호응하여 자발적으로 봉기한 민간인 부대입니다. 의병을 주도한 재지사족은 지역에서 명망과 영향력, 그리고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요건들 중에, 무엇보다도 유학의 가르침을 익혀 그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의무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의병 봉기를 주도한 사람들은 대부분 병법에 문외한이었으나<sup>8)</sup>, 나라가 위기에 처하여 아무도 국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때 충, 의와 같은 유학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죽음을 무릅쓰고 앞장서 나섰습니다. 또한 의병활동 초기의 군량은 지역에서 탄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춘 재지사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 임진의병의 공익 비전

임진의병의 공익비전은 사람들의 참여를 촉구하는 격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재미사학자 김자현은 『임진전쟁과 민족의 탄생』에서 격문에 나타나는 서사들을 분석하여 공통적인 것들을 간추려내었습니다. 이를 앞에서 살펴보았던 페이튼과 무디의 공익비전의 구조와 연결한 것이 다음 <표 3>입니다.

<표 3> 공익 비전의 구조와 임진의병 격문의 공통적 서사 비교

공익비전의 구조(페이튼과 무디)	임진의병 격문의 공통적 서사(김자현)
잘못된 것(해결해야 할 이슈)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침략자가 가한 잔학한 행동</li> <li>유린당한 조선의 국토</li> </ul>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에 관한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li> <li>교화된 존재로서 침략에 의해 돌이켜질 수 없는 개인으로서의 조선인</li> <li>중흥과 평화의 꿈</li> </ul>
비전을 향하는 실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가 어떻게 나설 것인가</li> <li>하나된 조선의 이미지</li> <li>희생의 요구</li> </ul>

7) 임진의병 중에는 휴정, 유정(사명대사), 영규 같은 의승(義僧)의 활약도 있었으나 이들의 공익 비전과 불교 사상의 관계, 자발성, 결사행동 등에 관한 조사 연구가 부족하여 이 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관해 잘 알고 계시는 분의 귀띔이나 제안을 기다립니다.

8) 의병장 102명의 출신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들 중 전직 문관, 생원, 진사, 유생은 79명으로 77%를 차지합니다(최영희, 『임진왜란중의 사회변동 : 의병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총서> 제28집, 재단법인 한국연구원(1975), 67쪽).

먼저 잘못된 것, 해결돼야 할 이슈로는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살육과 전쟁범죄 피해, 경제적인 손실, 문화와 유산의 손상과 같은 피해 상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것, 공익 비전으로는 전쟁으로 인해 훼손될 수 없는 조선의 높은 문화수준과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오랑캐의 지배 위협에서 벗어나야 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전쟁을 종식시켜 평화를 회복하고 조선을 재건하자는 호소도 담겨 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누가 나서야 할지, 충효를 배우고 강론한 선비에게, 나아가 신분의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다며 모든 조선인에게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병에 직접 참여하라거나, 여의치 않으면 집의 노비를 대신 보내거나, 군량을 내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내 고장이 직접적인 침략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나서야 할 이유로는 하나된 조선의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임진의병의 자발성

의병은 그 구성이나 관군과의 관계에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나 그 자발성은 대체로 인정됩니다. 아래 당대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른바 의병이란 것은 곧 **자기의 무기를 쓰고 자기의 양식을 먹으면서** 나라를 위해 적을 토벌함을 이르는 것이다. 『선조실록』 권 43, 선조 26년(계사) 10월 을사 기사 중.
- **진퇴(進退)를 임의로 하면서 관군의 징발[調發]에 따르지 않고** (후략)  
『선조실록』 권 46, 선조 26년(계사) 12월 임자 기사 중.
- 의병을 거두어 모아 각자 군대를 만들고 **주현(州縣)의 호령이나 부름을 받지 않은 경우**를 의병이라고 불렀고 (중략) 의병은 대부분 **향리(鄉里)의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약속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적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싸우면서 쉽게 무너지지 않았던 데 반해 (후략)  
『선조수정실록』 권 26, 선조 25년(임진) 12월 기사 중.
- 선비된 자의 의거(義舉)는 **자발(自發)에** 있는데, 나아가 의병장이 되는데 **어찌 조정의 명을 기다리겠습니까?** (중략) 의병이 비록 많다 하지만, 모두가 사림(士林)에서 나오고 **군량[糧餉]과 병기[器械] 또한 스스로 조달[自辦]**한다면, 무슨 소요(騷擾)의 폐단이 있겠습니까?  
오희문. 『쇄미록(瑣尾錄)』 권2, 재미일록 중.

위 인용문에서 의병의 자발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의병은 민간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한다.
2. 의병은 그 활동에 필요한 자원, 군량과 병기를 스스로 조달한다.
3. 의병은 국가의 통제를 (대체로) 받지 않는다.

는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됩니다.

이어서 임진의병의 이러한 자발성을 비보상성과 비강제성의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

겠습니다. 비보상성과 관련하여서는 의병이 내세운 ‘의’의 가치를, 비강제성과 관련하여서는 조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비보상성 : ‘의(義)’의 가치

일본군의 침략에 맞서 최초로 봉기한 광재우의 군대가 자신들을 ‘의병’이라고 부른 이후, 의병은 이와 유사한 민간인 부대를 가리키는 보통명사가 되었습니다. ‘의’는 ‘옳다’는 뜻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맞아 이를 방어할 국가의 힘이 존재하지 않을 때 누구라도 침략에 맞서 봉기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이익이 되어서도 아니며 옳기 때문에 한다는 의미에서 ‘의’는 자율성, 나아가 자발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의병 봉기를 주도한 재지사족들이 유학을 익힌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유학에서 ‘의’는 ‘리(利; 이익)’에 대비된다는 점에서 비보상성을 내포합니다. ‘의’는 유학의 바람직한 인재상인 ‘군자’의 덕목으로 여겨지는 반면, ‘리’는 군자에 대비되는 ‘소인’의 품성, 즉 덜 바람직한 품성으로 여겨졌습니다.<sup>9)</sup>

임진전쟁 중 금산전투를 이끈 의병장 조헌은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고 오직 의(義) 한 자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호소를 읽으면 논어의 ‘이익을 만나거든 의(義)를 생각하라.’는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이익이나 승산에 따른 판단과 행동보다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따른 판단과 행동을 권하고 있습니다.

### 의병과 조정 간 관계

의병이 자발적으로 봉기했다고 하여 조정의 통제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조정의 입장에서도 의병 활동을 지원 혹은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구요. 이러한 정책들이 의병의 자발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의병의 봉기는 전쟁 발달 당시 공권력의 실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임진왜란 발발 당시 조정은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관군은 패전을 거듭했습니다. 수령과 장수들은 싸우기도 전에 도망하거나,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백성들의 인심을 잃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병사와 군량을 징집하려고 하면 백성들은 이에 저항하였고, 관군으로 징집되어도 적을 만나도 싸우지 않고 달아났다고 합니다.<sup>10)</sup> 국가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

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명망과 영향력, 그리고 재력을 갖춘 재지사족들이 향토 보전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호소하며 봉기하자 백성들이 이에 호응하여 의병에 가담하니, 조정은 민심을 수습하고 일본에 대한 항전 태세를 갖추는 데에 의병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의병에 필요한 조정의 지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조정에서 의병을 공인하는 것입니다.

9) 군자는 의(義)에 밝고, 소인은 이익[利]에 밝다. (<논어(論語)>. 이인(里仁).)

10) 성훈(成渾)의 편의시무(便宜時務) 중. (『선조수정실록』 권 26, 선조 25년 임진년(1592) 12월 기사)

왜냐하면 민간인의 무장 봉기는 당시 조선에서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1400년에 사병이 혁파된 이래 무력 사용은 국가에 독점적으로 귀속되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이 직접 무장하고 봉기하는 일은 당시의 급박한 전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비록 국가에 대한 충성을 표방하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 해도 조정이 승인하지 않은 의병 봉기는 역모 혹은 도적질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였습니다.<sup>11)</sup> 한 예로, 광재우의 의병부대는 합천군수 전현룡으로부터 도적떼로 오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의병 봉기를 승인하고 촉구하는 조정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광재우의 경우 초유사 김성일의 공인 조치가 없었다면 그의 의병부대는 뿔뿔이 흩어져 지리산으로 숨어들었을 것입니다.<sup>12)</sup>

둘째, 의병운동을 지원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초유사가 모집한 의병을 종전 의병 부대에 배속시키거나, 군량과 병기를 지원하는 등 의병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조정이 직접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은 의병 운동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는 전공(戰功)을 세우는 자의 신분 상승을 약속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셋째, 의병 활동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의병 부대는 수십 명의 부대에서 수천 규모의 대부대까지 크기가 다양했는데, 이들의 전투력과 조직력은 제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병 부대들이 서로 협력하여, 혹은 의병과 관군이 함께 전투를 수행하려면 이를 조율하는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관군과 의병 간 갈등을 조정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관군과 의병, 관군을 이끄는 장수(혹은 수령)와 의병장이 갈등을 빚는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또한 초유사의 몫이었습니다.

### 자발성의 훼손

초기 임진왜변의 순수한 자발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때 자발성의 훼손은 비강제성의 훼손이라기보다는 비보상성의 훼손 문제로 보입니다.

첫째, 관군의 소모에 불응하고 의병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조정에서 의병 봉기를 독려하면서 관군의 모집에 응하는 대신 의병에 참여하는 것을 용인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어차피 관군은 잘 모집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조정의 이러한 조치는 부득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관적(官籍)에 이름이 올라간 자가 도망하여 숨었다가 무리를 모아 의병을 칭하는 방법으로 죄를 면하려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sup>13)</sup>

또 관군으로 징집되면 향리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지만<sup>14)</sup>, 의병에 참여하면 자기 향리에 살면서 활동할 수 있으므로 의병 참여를 보다 선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동기는 향토를 보전하고 국가에 충성하고자 하는 의로운 자발성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11) 최영희, 『임진왜란중의 사회변동 : 의병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총서> 제28집, 재단법인 한국연구원(1975), 41~42쪽.

12) 경상우도 초유사(慶尙右道招諭使) 김성일(金誠一)의 치계(馳啓) 중. (『선조실록』 권 27, 선조 25년 임진년(1592) 6월 기사)

13) 비변사(備邊司)의 보고 중. (『선조실록』 권 30, 선조 25년 임진년(1592) 11월 기사)

14) 『난중일기』, 계미년 말에 첨부된 서간문초 중.

근자 전라도의 인심을 보건대, 한 번 군사를 징집한다는 소문이 들리면 모두가 도망할 생각만 품고 있다. 바닷가 사람들은 대개가 이미 모두 도망하였으며, (관군에 징집되면) 수로를 따라 관서지방으로 가게 되어 돌아오기를 기약하기 어렵고 해안 지방은 지키는 자가 없으니 장차 적의 소굴이 될 것이며, 부모처자도 다시는 만나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인심의 이산은 이와 같이 극에 이르렀다.

둘째, 의병 활동에 대한 조정의 보상에 관한 것입니다. 조정은 의병으로서 올린 전공에 대하여 관직을 내리는 등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비보상성의 측면에서의 자발성이 의미하는 바가 보상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으나, 그 허용 정도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군은 이기면 상을 받고 패하면 죄를 받는 반면, 의병은 ‘이기면 높은 상을 받고 패하여도 죄를 받지 않는’ 까닭에 ‘이로우면(승산이 있으면) 싸우고 강적을 만나면 흠어지는’<sup>15)</sup>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임진왜병의 자발적 행동

임진왜병의 공익비전과 자발성은 어떻게 실천되었을까요? 여기에서는 주로 결사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병의 기반과 조직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병을 주도한 재지사족은 향촌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연이나 당색에 따라 중앙의 정치세력이나 지방의 다른 재지사족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전쟁 발발 이후 조선 전역에서 의병이 즉각적이고 연쇄적으로 봉기할 수 있었던 여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병부대 간 소통과 연합의 기반이 되었습니다.<sup>16)</sup>

의병부대의 결성 방법은 첫째, 각 고을에서 집중적으로 군사를 모아 봉기하는 경우, 둘째 도내 전역 혹은 그 이상의 지역에서 군사를 모으는 경우, 셋째 소규모 부대로 봉기하거나 결성한 다음 여러 고을의 의병을 합하여 규모를 늘려 나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sup>17)</sup> 의병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의병대장을 추대하고 여러 직책을 임명함으로써 중층구조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모관(召募官), 모량사(募糧司), 의곡장(義穀將)과 같이 병사와 병기, 군량을 모으는 일을 전담하는 직책을 두는 등 전문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격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격문은 의병 조직 및 의병장이 병력과 군량을 모집하기 위하여 일반 대중에게 의병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입니다. 여기에는 동참의 명분으로서 공익비전에 관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격문은 사회적 신분과 지역을 초월하여 조선인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의병운동을 확산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sup>18)</sup>

마지막으로 소모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모는 ‘불러모은다’는 뜻으로서, 병력과 병기, 군량을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병은 관군과 달리 병기와 군량을 직접 조달해야 했으므로, 소모는 의병부대 운영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었습니다. 의병부대가 봉기한 초반에는 이를 주도한 재지사족의 사재로써 이를 충당하였으나 차츰 이를 소모로 충당하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소모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따로 두기도 하였습니다.

15) 비변사(備邊司)의 보고 중. (『선조실록』 권 30, 선조 25년 임진년(1592) 11월 기사)

16)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상소와 공론정치』, 선인(2002), 155쪽.

17) 조원래, 『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2011), 77쪽.

18) 김자현(주채영 옮김), 『임진전쟁과 민족의 탄생』, 너머북스(2019), 73쪽.



## 보완 및 후속 연구 제안

이 보고서는 나눔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인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동’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이것이 임진의병 사례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내용은 비전문가에 의해 검토된 것으로 많은 보완과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보고서 내용의 대부분은 임진왜란 당시 문헌을 인용하고 분석한 몇몇 2차 문헌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2차 문헌들을 검토해야 함은 물론 가능한 한 1차 문헌들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이 중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것들도 다수 있으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1차 문헌 중에는 격문 등 의병 봉기의 공익 비전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을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연구가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이 보고서에서는 임진의병 문화가 오늘날에 전승되었을 ‘가능성’만을 언급하였는데요. 오늘날 한국인의 나눔 행동의 특성 중에 임진의병 문화에서 그 연원을 찾을 만한 것이 있는지, 그것은 임진의병 이후 역사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규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주제에 대해 앞으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 보고서 내용과 연관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공자(김형찬 옮김). 『논어』. 홍익출판사(2005).
- 김자현(주채영 옮김). 『임진전쟁과 민족의 탄생』. 너머북스(2019).
- 누스바움, 마사(정영목 옮김). 『인간성 수업』. 문학동네(2018).
- 맹자(박경환 옮김). 『맹자』. 홍익출판사(2005).
- 샌델, 마이클(김명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2014).
- 설석규. 『조선시대 유생상소와 공론정치』. 선인(2002).
- 조원래. 『새로운 관점의 임진왜란사 연구』. 아세아문화사(2011).
- 최영희. 『임진왜란중의 사회변동 : 의병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총서> 제28집. 재단법인 한국연구원(1975).
- 페이턴, R.L.. 무디, M.P.(이형진 옮김). 『필란트로피란 무엇인가』. 아르케(2017).

### 2. 고전원문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 『선조실록』
- 『선조수정실록』
- 조경남. 『난중잡록』
- 조헌. 『중봉선생문집』

### 3. 기타

- Sulek, Marty. 「On the Meaning of Philanthropy」.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March 2019 (193-212).
- 「63. 호국 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 <제 28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2010.2.26.) 회의록>. 국회사무처(2010).

